

재난 대응능력 강화

도, 안전한국훈련 실시... 화재·붕괴·유해화학물질 유출 대비 대응

전북도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종합점검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8일 전주페이퍼 한지박물관에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주페이퍼 한지박물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으로 인한 건물 붕괴 및 유해화학물질(황산) 유출을 통한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다.

오전에는 13개 협업부서와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 주재로 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른 토론회를 실시하여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긴급 재난상황 대응능력을 점검했다.

특히, 그동안 도지사 주재의 진행방식을 벗어나 상황전개에 따른 부서간 자율토론 방식을 통하여 진행함으

로써 복합재난 발생 상황에 따른 부서 간 협업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훈련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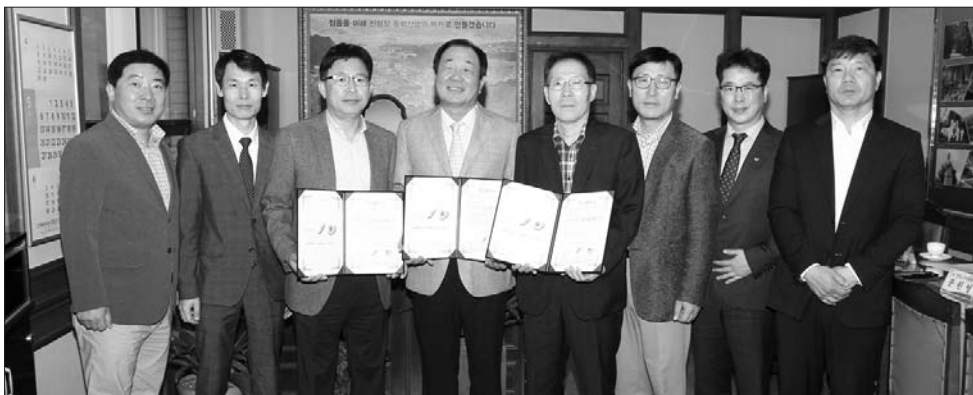
오후에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소재한 (주)전주페이퍼 한지박물관에서 소방, 경찰, 35사단, 새만금지방환경청, 익산119화학구조센터 등 23개 기관·단체 관계자 및 주민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헬기·사다리차 등을 이용한 인명구조, 유해화학물질인 황산 유출에 따른 주민대피 및 방재 훈련 등 실질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대형복합재난 발생 시 전북도 차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소방대원이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하여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 탐색 등 ICT 기반 구조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대형재난 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을 활용한 실제자원이동 훈련을 병행하여 지자체간 부족자원에 대해 신속하게 응원(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점검했다.

이로써 지난 5월 8일부터 2주간 지자체 등 모든 기관에서 실시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18일 전라북도의 현장 대응훈련을 끝으로 종료됐다.

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안전한국훈련에 적극 참여해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전하며 "우리가 평소에도 안전을 의식하고 생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생과 사를 가르는 중요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의 재난대응 훈련을 통해 도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18일 정읍시청에서 김용만 정읍시장 권한대행, 전북도 문원영 투자유치과장, 크린앤사이언스 박규범 대표이사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 중설 투자에 따른 협약(MOU)을 체결했다.

필터제품생산업체 정읍에 등지

도-정읍시-크린앤사이언스, 공장 증설 투자협약 체결

여과지와 필터제품 관련 대표기업인 (주)크린앤사이언스(이하 크린앤사이언스)가 정읍 제3산업단지 내에 증설 투자한다.

18일 정읍시청에서 김용만 정읍시장 권한대행, 전북도 문원영 투자유치과장, 크린앤사이언스 박규범 대표이사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 중설 투자에 따른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크린앤사이언스는 제3

산업단지 기존 공장 옆 2만1,160㎡(6,401평) 부지에 2020년까지 15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생산 용량 증설 및 5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크린앤사이언스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체다. 여과지와 필터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1973년 설립된 전일공업사가 전신이다. 1994년부터 정읍 제3산업단지에 등지를 들고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7월 국비보조사업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화 지방공장으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생산 과정에 ICT(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기술을 도입하고 공정의 최적화와 생산력 증대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증설 투자는 지속적인 주문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투자가 완료되면 정읍공장의 기존 사업장은 1차 가공(여과소재 생산)을 맡고 증설 사업장은 2차 가공(역체 및 기계 필터 제조)을 맡아 제조 공정이 분리 및 자동화됨에 따라 생산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거소투표신고하면 우편으로 투표 가능

전북도선관위, 내일부터 26일까지 신고해야 신체장애·병원 요양자·군인·경찰 공무원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 거주자 등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18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사전투표를 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발송해 달라고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5월 21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합계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

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마감일이 토요일일에도 불구하고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 되어야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늦어도 2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는 관할 선관위에서 동일 필체 등 허위 신고로 의심되거나 대리투표 발생 소지가 있는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관여조사팀을 투입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일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apply.nec.go.kr)를 이용

하거나 관할 구·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apply.nec.go.kr)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공보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기간을 3일 앞당겨 19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선거공보 발송신청 안내 영상은 한국선거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우라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에서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공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5월 21일까지 전입신고(정부가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22일이 부처님 오신 날로 공휴일에 해당되어 전입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23일 이후 전입 신고한 유권자는 선거일에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6월 8일과 9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지원

도, 대상자로 순창군 선정 2020년까지 80억원 투입 중군산업 선도기업 육성도

전북도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지원에 순창군이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발효미생물 산업화 및 발효식품제조업체 공급활성화 등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중군 반제품 원료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80억원(국비40, 지방비40)을 투자하여 센터를 건립하고, 배양 및 생산 등 관련 장비 구축한다.

도는 그 동안 기업체가 요구한 산업용 균주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 플

랫폼이 없어 종균 보급센터 구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안한 바에 있다.

발효미생물산업화 지원센터는 순창군 정동발효문화산업지구 내에 부지 3,714㎡, 지상 2층 연면적 1,650㎡ 규모로 건립되며, 이를 위해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19년까지 센터 건립공사를 완료하게 되며, 2020년부터 배양장비 등 관련 장비구축하여 2020년말에 준공할 계획이다.

향후 센터에서는 발효 종균 상품화 및 사업화를 위해 중군산업 선도기업(5개사) 및 스타기업 2개사를 집중 육성하고, 국내 100개 기업 이상 맞춤형 발효미생물 공급, 발효미생물 산업화 기술이전을 통한 수입미생물 대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도의회, 국민연금공단서 직무역량강화 교육

전북도의회는 18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전라북도와 함께하는 글로벌 국민연금"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국민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목표표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 중심 도시를 위한 중앙정부의 추진의지와 지원,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간 협력, 도민의 지지 등이 뒷받침 돼야 제3의 금융허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강의에 앞서 양용모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강의를 통해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국민연금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